설 특별 민생자금 12조5000억원 공급

금융당국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 최대 5일 단축 따라 약 3조4000억원 결제대금 조기 지급 효과"

정부가 설을 맞아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총 12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당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원(신규대출 3조8800억·만기연장 5조5200억)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원(신규보증 4940억·만기연장 2조5962억)의 보증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지원자금을 공급,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현행 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03만9000개,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 20만6000개 등으로, 연휴기간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당국 관계자는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 지급 지연 등으로 설 연휴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에 나선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인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4일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9일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인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14일 우선 지급한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10~11일 2일간 휴일 영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북한·중국발 사이버공격,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보안관제 현황과 사이버공격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설 연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

금융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도 명절 당일(16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운영한다.

한편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 안내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설 연휴인 15~18일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 결제,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금융업무 전체 처리가 불가하다.

단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타 기관 자동화기기를 통한 우리은행 현금서비스는 가능하다.

/뉴시스

올해 서민 주거 안정 '총력'

전북개발공사, 임대주택 건립 집중

전북개발공사가 올해 서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6일 전북개발공사는 서민 주거안정과 사업영역 확대 등 '2018년 현안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해 나간다.

현안계획을 살펴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에 집중한다.

이에 이미 착공해 건립중인 전주 만성지구 공공임대주택(832세대)과 장수 농어촌임대주택(100세대), 임실 농어촌임대주택(95세대) 등 총 1027세대 입주민을 연내 모집할 예정이다.

또 진안 농어촌임대주택과 무주 농어촌임대주택 등 총 1020세대를 실시설계하거나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노력과 시군협력사업도 진행된다.

정부의 '신재생3020' 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해 태양광발전 및 수상태양광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순창순화지구도시개발사업 및 군산금광지구 도시재생연계형 행복주택사업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경영운영을 위해 전북혁신도시와 전주만성지구의 잔여 택지공급을 마무리하고, 임대주택 무방문 전자계약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임대주택관리전략을 펼친다.

이밖에도 1사1촌 봉사활동과 한마음 봉사단 등 사회환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기존의 공사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도민의 변화하는 요구에 한발 빠르게 움직이는 전북개발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내 항공기, 10년간 2배 증가… '800대 시대 눈앞'

저비용항공사(LCC) 성장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가 최근 10년 간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등록된 항공기가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792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대(3.9%)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418대에서 2010년 514대, 2013년 623대, 2016년 761대, 2017년 792대로 늘어났다.

올해도 22대가 도입될 예정으로 올해 안으로 8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된 수치로 3년 단위로 평균 100대씩 증가 추세를 보여 향후 5년 내 1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792대의 항공기 분포를 보면, 국내·국제 운송사업용 369대(46.6%), 비사업용 221대(27.9%), 항공기사용사업 172대(21.7%), 소형항공운송사업 30대(3.8%)순이다.

지난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국내·국제 운송사업용 항공기로 21대가 증가했다. 이 중 저비용항공사(LCC)가 18대를 새로 도입해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에어부산 5대, 제주항공 4대, 에어서울 3대,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각 2대다.

도입되는 기종을 보면 저비용항공사는 단거리 노선에 최적화된 B737, A321 기종을 주로 도입했다.

대형항공사는 동체를 탄소복합특수소재로 만들어 무게감소 및 연료효율을 향상시킨 신형 B787-9, A350 기종 등을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항공기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항공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민원편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기념 우표 발행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에 기념우표 2종 130만장과 우표첩 1만부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기념우표는 성화봉과 메달을 담았다. 성화봉은 평창의 해발고도 700m를 나타내고자 700mm 길이로 제작됐다. 성화가 점화되면 금색부분이 하나의 큰 불꽃처럼 보인다. 메달은 우리 민족의 상징인 한글과 한복을 모티브로 앞면에는 오륜문양이, 뒷면에는 대회 세부 종목명이 새겨져있다.

우표첩은 개막기념 우표와 올림픽 개최기념 우표(2017년11월1일 발행), 초일봉투로 구성돼 있다.

우표는 330원(전지기준 장당 4,620원), 우표첩은 20,000원 이다.

/김진성 기자

"모두에게 따뜻한 명절이 되길"

전북은행, 익산시 방문 선물꾸러미 150상자 기탁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 이정영 부행장은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전달해달라며 6일 익산시(시장 정헌율)를 방문해 선물꾸러미 150상자(375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 선물꾸러미에는 명절을 지내는 데 필요한 김과 당면, 식용유, 밀가루, 설탕, 사탕, 치약, 세제, 라면, 간장 등 총 10종의 생필품이 담겨 있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 부행장은 "민족의 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선물꾸러미를 직접 포장하여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릴레이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며, "저소득가정이 설 명절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모두에게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정영 부행장과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어르신 300여 명을 위한 '따뜻한 밥상 떡국 나눔' 행사를 열어 떡국 배식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새해 건강을 기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매년 설 명절에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선물꾸러미 전달과 떡국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으며, 상품권, 백미, 등유,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 등 연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나눔 문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속되는 추위에 훈훈한 마음 담아"

전북은행, 정읍시에 생필품 250만원 상당 기탁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도록 10가지 종류의 생필품을 담은 25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 100박스를 올해에도 정읍시에 기탁하여 희망나눔의 온도를 높였다.

기탁한 선물꾸러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북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매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 명절 선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에서는 한파가 지속되는 추위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명절선물로 생필품에 훈훈한 마음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을 맞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통한 민간자원의 연계로 복지사각 지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